

민선 6기 첫 시·도정 질문 쟁점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14일부터 민선 6기 첫 광주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시정·도정 질문에 나선다. 이번 시·도정 질문은 민선 6기 시·도지사들의 취임 100일이 넘어선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취임 100일 간의 평가와 다양한 시·도의 주요 현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소통문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논란

2016년 F1 재개 여부... 사파리아일랜드 중단

광주시의회 14~15일

중국 관광객 유인 대책 체육시설 지역 불균형

14일과 15일 양일간 광주시를 상대로 진행될 시정질문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사 문제와 의회와의 소통 문제, 광주시철도 2호선 재검토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질문 첫날인 14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이 나서 민선 6기 들어 논란이 되던 윤 시장의 즉각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윤 시장의 취임 100일을 평가한 결과 인사는 ‘구태’, 소통은 ‘답답’, 정책은 ‘대동소이’라고 지적한 뒤 공기업 혁신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훈수(새정치·남구 3) 의원은 윤 시장의 리더십 부재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윤 시장의 취임 이후 시 조직개편안 논란, 의회 사무처 인사 문제, 캠프사건 합의,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 등이 단 한번도 시의회와 논의 또는 협의되지 않았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할 계획이었다.

박 의원은 또 푸른길 조성 관리·감독 부실, 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 등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15~16일

전남개발공사 구조조정 여수박람회장 활용 방안

15일과 16일 이틀간 첫 도정질문에 나선 전남도의회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낙안 전남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과 F1, 사파리아일랜드 사업, 전남개발공사 구조조정 등 다양한 현안들을 짚을 예정이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김탁 의원(목포4)과 김욱기(나주2), 박철홍(담양1), 고경석(목포3), 우승희(영암1), 박현호(완도), 김기태(순천1), 최대식(여수2), 민병홍(화순2), 김성일(비례, 새민연), 오미화(비례, 동진당)의 등 11명의 의원이 일문일답 형태로 질문을 벌인다.

김효남(해남2), 강성휘(목포1), 윤도현(강진2), 박철홍(비례, 새민연)의원 등 4명은 일괄질문형으로 질문에 나선다.

김탁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섬과 숲 가꾸기 등에 대해, 김욱기 의원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나주미래산단 조성 등에 관련해 질문할 예정이다.

박철홍 의원은 ‘차이나 프렌들리’를 선언한 이 지사에게 중국 전문 및 베이부부머세대 이도향촌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도청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회 실시 여부, 이 지사의 공약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고경석·우승희 의원은 F1대회 2016년도 재개 여부를 집중 질문한다. 박현호 의원은 이 지사에게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견해를, 실·국정에 대해서는 도지사 특보보좌관과 정책고문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세월호 인양 작업과 관련해 국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김기태 의원은 사파리아일랜드 중단 배경과 서남해안레저도시사업 현황을, 최대식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용 방안을 집중 질문하며, 민병홍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의 12개 사업 만능적자 이유와 대책 등을 따진다. 이 밖에 김성일 의원은 산지유통센터 등 운영 실태를, 오미화의 의원은 농정·안전·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을 벌이고, 김효남 의원은 한·중 FTA 체결과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대응책을 추궁하기로 했다. 강성휘 의원은 민선 6기 일자리 대책 중장기계획, 윤도현 의원은 도내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등을 도정 질문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ilbo.com



광주 출연·출자 기관, 경영평가 하락에도 성과급 잔치

광주문화재단 1억6700만원·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4100만원 등

임택 시의원 시정질의 자료

광주시가 출연·출자한 기관 대부분이 경영평가 실적 하락에도 거액의 기관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임택(새정치·동구 1) 의원이 13일 미리 배포한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8

곳이 최고 2억1800만원(광주신용보증재단)에 이르는 기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관 중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7곳은 지난 2012~13년 경영평가 점수가 그 전보다 떨어졌다.

특히 10.49점이 하락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미끄러진 광주문화재단은 임원 성

과급을 포함 1억6700만원을 챙겼다.

7.81점이 떨어진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도 4100만원을, 2.91점 하락한 광주경제교류진흥원은 2600여만원을 받았다.

성과급을 챙긴 기관 중 신용보증재단과 과학기술센터는 대표자 성과급으로 각 1200만원과 1300만원을 지급했다.

문화재단과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도

대표자 성과급으로 600만원과 360만원을 받아갔다.

광주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산하 13개 출연·출자기관 중 광주영여방송 등 6곳이 A등급을, 5.18기법재단 등 7곳은 B등급을 받았다.

임 의원은 “경영평가가 정량평가 위주로 이뤄진 데다 시장 측근일 수밖에 없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은 문제점 등으로 성과가 떨어졌음에도 거액의 성과급을 챙겨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조례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권일 기자 cki@kwangjuilbo.com



“광주 정신·시민 자부심 계승 지역과 상생하는 은행되길”

윤 시장, 광주은행 인수 JB금융에 주문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은행의 전 북은행을 모기업으로 한 JB금융지주 편입과 관련, 아쉬움이 섞인 우려와 함께 지역정신 계승을 통한 성공경영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광주시민)은 전북에 본점을 둔 JB금융지주가 기관으로서 광주은행만을 인수한 것이 아님을 당부하고자 한다”며 “광주·전남 지역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헌신, 공동체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정신 등을 계승해 성공하는 경영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10일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공시한 상태다.

윤 시장은 “광주은행의 성장배경에는 자치단체의 금고 역할 제공과 지역 경제발전,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지역민과 중소기업인, 지자체의 향토은행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힘입은 바가 절대적이었다”면서 새 주인이 된 JB금융지주의 지역 내 역할에 대한 조건도 곁들였다.

윤 시장은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에 매각된 데 대한 아쉬움과 우려감도 드러냈다. 윤 시장은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보인 협력과 의사소통 부족 등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규모로만 보면 광주은행의 절반을 약간 넘는 JB금융지주에 지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인수과정에서 경험한 광주·전남의 일시적인 미숙한 대응과정을 (지역 내 무관심 등으로) 잘못 판단해 지역민의 자부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인수 합병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시 급과



계약 등을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광주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시·도민과 고민해 볼 문제”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광주시가 은행장 선임 문제, 시 급과 교체 등을 거론할 위치나 상황에 있지 않으며, JB금융지주가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를 바랄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광주시는 2012년 시 북부금고로 광주은행(1급·3조5000억원)과 국민은행(2급·853억원)을 선정했으며 약정기간은 2016년까지다.

한편 윤 시장은 이날 오후 광산구를 순방해 “시와 자치구간의 인사, 예산, 사업 등에 걸친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 잡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산구에 위치한 군 공화 이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전남도도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민행매 광산구청장은 광주순정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건립, 평등 군 훈련장 이전 및 개발, 광산교육지원청 원형회복, 수완지구 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ilbo.com

/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ilbo.com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주사건 : 09:00~20:00(연중무휴)

상당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062)431-0102

가람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발일 1/1(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출발일	항공/패티아 5일	369 프로모션 방콕/파티아 5일
AAPF01-OX1	AAPF01-OX2	
출생: 1,003,900원~	출생: 1,303,900원~	
항공: 10월-11월/월요일	항공: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출발일	369 프로모션 방콕/파티아 5일	369 프로모션 방콕/파티아 5일
AAPF01-OXA	AAGF01-OX1	
출생: 1,453,900원~	출생: 1,453,900원~	
항공: 10월-11월/월요일	항공: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출발일	오아후 6일	AW101-A
HHW200-OZC/KEE	AW101-A	
출생: 2,476,100원~	출생: 3,751,200원~	
항공: 10월-11월/월요일	항공: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출발일	코사무이 6일	PSW18-OH
AAW199-TG1	PSW18-OH	
출생: 1,706,800원~	출생: 851,100원~	
항공: 10월-11월/월요일	항공: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특수: 10월-11월/월요일	

Queensland Where Australia Shines

호주 퀸즈랜드 설명회

2014. 10. 23(목) 18:3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광주 동구 서석로 13-1)

문의전화 : 062)228-1199

사전 예약 필수

런닝맨 촬영지로 유명해진 호주 퀸즈랜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설명회 참석자 제공 혜택

투어팁스 시드니 열복 증정

푸드&드링크 샌드위치 with 아메리카노 제공

참석자 전원 디저트 쿠키 제공

■ 여행상품 가격표에 기재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세비,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운송수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운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예약 한정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여행 상품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권/기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권/기 참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콜센터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